

 금융감독원	보 도 자 료	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GENER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SERVICE	 전국렌터카공제조합
---	----------------	---	---

보도	2024.3.7.(목) 10:30	배포	2024.3.6.(수)		
담당부서	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	책임자	실 장	정제용	(02-3145-8730)
		담당자	팀 장	김종호	(02-3145-8880)
	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	책임자	본부장	신세계	(02-6101-9249)
		담당자	부 장	이차민	(02-6103-9240)
	전국렌터카공제조합	책임자	상 무	이주호	(070-5007-0700)
		담당자	부 장	오상윤	(070-5007-0710)

민생침해 자동차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금융감독원-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-전국렌터카공제조합 간 업무협약 체결

- 주요 내용 -

- 금융감독원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,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은 민생침해 자동차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①정보공유 활성화, ②조사 강화, ③피해예방 홍보 등 상호협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

I. 업무협약 개요

- '24.3.7.(목) 김미영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과 주현종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장, 윤종욱 전국렌터카공제조합 이사장은 자동차 보험사기 근절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(MOU)을 체결
- 세 기관은 자동차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선량한 보험 가입자에게 피해를 초래하는 자동차 보험사기에 대해 강력하고 엄정한 대응을 천명하였으며,
 - ①정보공유 활성화, ②조사 강화, ③피해예방 홍보 등 상호협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통해 협력·공조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하였음

「금융감독원-자배원-렌터카공제조합 업무협약 체결식」 개요

- (일시·장소) '24.3.7.(목) 10:30~11:00, 금융감독원 본원(9층 중회의실)
- (참석자) 금융감독원, 자배원 및 전국렌터카공제조합 관계자 9명
- [금감원] 김미영 처장, 정제용 실장, 김종호 팀장
 - [자배원] 주현종 원장, 신세계 본부장, 이차민 부장
 - [렌터카] 윤종욱 이사장, 이주호 상무, 오상윤 부장

II. 업무협약 체결 필요성

□ 자동차 보험사기가 매년 증가*하고 있으며, '23년 적발금액은 5,476억원으로 전체 보험사기 적발금액(1조 1,164억)의 49.1%를 차지

* 보험업계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실적 : '21년 4,199억원 → '22년 4,705억원 → '23년 5,476억원
렌터카공제 보험사기 적발실적 : '21년 70억원 → '22년 75억원 → '23년 72억원

○ 최근에는 20~30대 젊은이들이 공모하거나 렌터카를 이용하여 고의 사고를 야기하는 보험사기가 크게 증가

○ 렌터카 사고의 경우 보험료 할증 등의 피해가 혐의자가 아닌 렌터카 업체(차주)에 전가되어 보험사기 유인이 높고, 렌터카 이용료 상승을 초래하여 다수의 선량한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

□ 이에, 금감원·자배원·렌터카공제조합은 자동차 보험사기 조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긴밀한 업무 협력의 필요성을 공감하고,

○ 각 기관의 전문성을 융합하여 민생침해 자동차 보험사기 대응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

III. 업무협약 주요 내용

■ 민생침해 자동차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①정보공유 활성화, ②조사 강화, ③피해예방 홍보 등 상호협력을 강화

① 자동차 보험사기 정보공유 활성화

○ 금감원·자배원·렌터카공제조합은 Hot-Line, 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자동차 보험사기 혐의정보 공유를 강화

② 자동차 보험사기 조사 강화

- 정기적으로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혐의정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중요 보험사기 혐의에 대한 공동 기획조사 실시
- 실무협의회, 워크숍 등을 통해 각 기관의 자동차 보험사기 조사 기법을 상호 교류하여 보험사기 조사 역량도 강화

③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예방 홍보

- 자동차 보험사기 예방을 위해 공동으로 피해사례, 예방방법 등 대국민 홍보활동을 전개

IV. 기관별 발언요지

- (금감원 금소처장) 매년 자동차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있고, 그 수법도 지능화·조직화되고 있으며,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가 선량한 국민에게 돌아가는 심각한 상황
 - 진화하는 자동차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유관기관간 원활한 정보공유, 각자의 전문성과 인프라를 연계한 공동 대응이 필요
 - 금번 업무협약을 통해 자동차 보험사기 근절과 민생 안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,
 - 자동차 보험사기 근절 노력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총력 대응해 나가겠음
- (자배원 원장) 사업용 차량, 특히 렌터카를 이용한 보험사기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,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여 선량한 국민의 피해 야기
 - 점차 조직화, 지능화되고 있는 자동차 보험사기의 근절을 위해 유관기관의 소통과 협력 강화는 필수적이며, 공조체계를 강화하여 보험사기 유인을 사전적으로 차단하는 것도 중요

- 이번 협약을 통해 자동차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간 협력 체계의 모범을 제시하는 성과를 기대
- 자동차 사고로 인한 피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동차 보험 제도가 한층 더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 가겠음

□ **(렌터카공제조합 이사장)** 렌터카산업 발전으로 렌터카 이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, 렌터카는 일반 차량에 비해 보험사기 유인이 높음

- 렌터카공제조합은 전담조직을 운영하며 보험사기 적발·방지를 위해 노력하였으나, 고도화·지능화되는 보험사기에 대한 협업 필요성 증가
- 조합만의 노력으로는 보험사기 조사 사각지대에 있는 보험사기 혐의자를 확인하기 어려움
- 금번 협약을 통해 유관기관간 정보공유 및 공동대응을 활성화하고, 보험사기 적발 및 예방을 통해 선량한 운전자와 렌터카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임

V.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

- 금번 업무협약을 통해 각 기관의 전문성과 업무경험을 연계하여 조사 강화 뿐만 아니라 보험사기 조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자동차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
- 아울러, 보험사기로 인한 손해보험사와 공제조합의 보험금 누수를 방지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, 선량한 국민들의 부당한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

- 향후 금융감독원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,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은 업무협약(MOU)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,
- 정기적으로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자동차 보험사기 혐의정보 공유를 강화하고, 조사기법을 교류하는 등 자동차 보험사기 조사를 강화해 나아갈 계획
- 또한, 자동차 보험사기 범죄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공동 기획 조사를 추진하고, 피해예방 활동도 적극 진행할 예정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<http://www.fss.or.kr>)

붙임1

보험사기 적발실적

1 보험업계 보험사기 적발금액

(단위 : 억원, %)

구분	2021년	2022년		2023년	
	금액	금액	증감률	금액	증감률
보험업계 보험사기 전체	9,434	10,818	14.6	11,164	3.1
자동차 보험사기	4,199	4,705	12.0	5,476	16.4

2 공제조합 보험사기 적발금액

(단위 : 억원, %)

구분	2021년	2022년		2023년	
	금액	금액	증감률	금액	증감률
공제조합 보험사기 전체*	89	95	6.7	106	11.5
렌터카 보험사기	70	75	7.1	72	△4.0

* 공제 조합 전체 : 법인택시, 화물차, 버스, 개인택시, 전세버스, 렌터카

붙임2

자동차 보험사기 사례

1 진로변경 차량 등을 대상으로 고의사고 유발

-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하여 진로변경 차량, 교차로 진입 차량 등을 대상으로 고의사고 17건을 야기하여, 보험금 3억 1천여만원을 편취*

* 보험회사 2억 8,600만원, 렌터카공제조합 2,400만원

2 구인구직 사이트를 이용한 보험사기

-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에 고액알바 구인광고를 게재하여 가·피공모 가담자를 모집하고,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고의 사고를 야기한 후 보험금 2억 7천여만원을 편취*

* 피의자 60여명 중 총책 등 6명 구속, 나머지 가담자는 불구속 기소